

# 남원 운봉고원 가야문화 '한눈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개관... 전시실·수장고·디지털 실감 영상실 등 갖춰

남원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운봉고원에 가야문화 유산의 정체성을 관할할 수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을 14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립은 유산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문화유산 전문가자문을 통해 건축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건물은 고분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게 지하식으로 하고, 외형은 고분군의 곡선을 형상화한 형태로 건립되었다.

홍보관은 부지면적 6,191㎡에 연면적 560㎡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디지털 실감 영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남원 가야문화 유산의 시작을 알리는 △공평유적, 동북아시아 문물교류의 중심지 △청계리 고분군,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가야계 문화유적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단서를 제공한 △월산리 고분군, 지역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봉대리 고분군을 시간순으로 전시하여 운봉고원 가야의 흥망성쇠와 변화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1989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그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운봉고원에 가야문화 유산의 정체성을 관할할 수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이 14일 문을 열었다.

에 담겨진 수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장구한 세월 동안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고 앞으로 잘 보전하고 계승해야 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또한 1,500년 전 가야인의 생활상을 유추해볼 수 있는 유물 약 200여 점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접목하여 운봉고원 가야인의 삶과 정신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마지

막 장에서는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현황과 유산별 가치에 대해 전시·설명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홍보관은 가야문화 유산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공간이자 세계유산의 의미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 상품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우수성을 갖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응모는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전북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6월 25~30일 4일 간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류와 실물 작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개인 또는 사업자다. 접수된 작품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상품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상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각 상품별로 200만 원의 생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100선'관' 입점 기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판매 지원, 약 한 달간의 2025 선전작 '기획 전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제17회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21~23일 장애·인권 주제 9편 상영·감독과의 대화 등 진행

익산에서 장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영화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제17회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익산공공영양미다이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아무튼 같이: 가치'를 주제로 걸고, 사회 속 보이지 않는 경계와 편견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조명한다. 영화제에서는 △퍼펙트스 △그녀에게 △같이 살기 △기억과의 대화 등 장애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9편이 무료 상영된다. 일부 작품은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돼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간다.

첫날인 21일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블링의 이야기를 담은 '퍼펙트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 과거를 풀어내는 '그림자 원형', 장애 가족 자매의 서사를 담은 '나의 X 언니'가 차례로 상영된다.

22일은 발달장애아의 양육·교육 문제를 다룬 '그녀에게', 발달장애 청년과 비장애 예술가의 연극 제작기 '지금 네 옆에 있어', 장애

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을 폐쇄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여기가'를 만나 볼 수 있다.

23일은 청각장애인 엄마와 청인 딸의 소통을 담은 다큐멘터리 '주고받은 ( ) : 노력'과 서른 중반에도 성장통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같이 살기'가 상영된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일본 다큐멘터리 '기억과의 대화'는 장애와 비장애,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도교 경계선 기행' 프로젝트에 10년 만에 다시 응답하는 영화다. 상영 후에는 사사키 마코토 감독이 관객들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눌 예정이다.

익산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상영작은 한글 자막 및 화면 해설 서비스인 가치비전 또는 한글 자막으로 구성돼 제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재미극장은 휠체어 전용 공간과 경사로를 갖춘 무장애 환경(배리어 프리)을 완비했다.

모든 영화는 별도의 예매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공예문화 확산 '공예주간' 16~25일 개최

### 전주문화재단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16~25일 열흘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공예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예주간'은 매년 5월 공모에 선정된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서 열리는 공예문화 축제로, 지역 중심의 공예 콘텐츠 발굴 및 대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도시로 전주를 포함, 강원도 고성과 부안 등 3곳이 선정됐다.

전주는 '공예마을여행: 유람기'를 주제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공예인과의 '공생(共生)'을 바탕으로 공예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공작(工樂)'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은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예유람 스낵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놀공' 체험 △공예유람 마켓 △공예 유람단 △공예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 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공예유람 스낵 전시'는 공예품전시관 마중관, 인형극 체험관, 탐미주의 등 한옥마을 내 3개 전시 공간을 순회하며 관람과 함께 스낵 투어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또한 '공예 유람단'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의 공방, 공예작가, 유람기관을 방문하며 지역 공예 문화를 체험하고,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공감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지역 공방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켓 등 일반 참여 중심의 행사도 함께 열려 공예주간의 풍성함을 더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축제인 '2025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5)'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부안상감 X 부안상감'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부안 전역에서 펼쳐지며, 상감기법을 중심으로 부안 청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조명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과 융합한 공예·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공예의 일상화를 연결하는 문화축제로 기획되었다.

청자박물관에서는 △장작가마 소성 시연 및 소원 장작 체험 △청자 태도 다지기 '질뵈기' 체험 △청자 잔을 선택해 음료를 들

기는 '청자카페' △공예인의 도구와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 '공생공작(共生工樂)' △지역 공예인의 작품을 만나는 공예 마켓과 체험존 △아이들을 위한 '사슴과리 발굴단' △전북 무형문화재 이은규 사기장과 함께하는 '삼강 클래스'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예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부안 곳곳에서는 지역 공방과 협력한 △공예체험 팝업카페와 부안 곳곳의 카페, 식당, 농민 5개소에서 공예작가와 업체가 협력하여 전시, 체험 등을 진행하는 △부안 미술(美術)관이 운영된다.

한편 공예주간 동안 메인 행사장인 청자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로 운영되며 부안 청자박물관이 준비한 '도자기따라 민화 산책' 기획전 또한 관람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일본 오사카서 전북 관광 매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일본 현지에서 전북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13~16일 오사카에서 오사카 엑스포 연계 행사로 열리는 'K-관광페스타 한국관광의 날'에 참가해 전북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전통문화, 지역 특색이 살아 있는 관광지와 미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을 찾은 일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했다. SNS 팔로우 이벤트와 함께 전북 관광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했다. 또한 전북 관광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소중한 데이



터를 확보했다.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 미식 여행 코스, 웰니스 콘텐츠 등을 주제로 한 관광 설명회와 퀴즈 이벤트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